

서재홍 조선대 총장 '자랑스런 여수인상' 수상



서재홍(왼쪽) 조선대 총장이 최근 여수 진남경기장에서 열린 '2013 여수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김충석 여수시장으로부터 '자랑스런 여수인' 상을 받았다.

건보 무안·신안지사 봉사단, 다문화센터에 상품권 전달



국민건강보험공단 무안·신안지사 건이강이 봉사단(단장 신호성)은 최근 무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찾아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무안·신안지사 제공>

해남경찰서 송지파출소, 관내 독거노인에 쌀 전달



해남경찰서 송지파출소(소장 조상철)는 최근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기탁 받은 쌀 5가마를 관내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하고, 보이스피싱 예방활동도 펼쳤다. <해남경찰서 송지파출소 제공>

배병채 전남도위원, 수필가로 등단

'문학예술' 가을호에 '청정고을 우리 곡성' 신인상

현직 도의회 교육위원이 최근 문예지에 수필이 당선돼 눈길을 끈다. 전남도의회 배병채 교육위원은 '문학예술' 2013가을호에 '청정고을 우리 곡성 아끼고 보전해야'로 당선돼, 신인상을 수상했다.

성을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개발을 자제하고 녹색성장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심사위원들은 배 위원 수필에 대해 "천예의 자연, 아름다운 고향을 지키고 보전하는 것이 지역민의 건강한 삶과 직결되는 점을 설득력 있고 명쾌하게 그렸다"고 평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

"청정고을 곡성의 아름다움과 문화적 가치를 일깨우고 보존하는 일은 우리 자신을 지키고 후손을 위한 길이다." 곡성 출신 배 위원은 편리성과 경제성을 앞세운 개발로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한다. 기차 마을과 심청이 마을로 유명한 곡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화족

▲이경원·권정희씨 장남 현우(두산중공업)군 성석현(전 수자원공사)·장충업(신가초등학교 교사)씨 장녀 수진(초등학교 교사)양=19일(토)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웨딩홀 1층 새종홀.

▲김기식(보성군청 주민복지실장)·안금숙씨 아들 우재(한국 기상산업진흥원)군 최순복(전 인천남동시범공단 분부장)·송희순씨 딸 현정양=20일(일) 오후 3시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3층.

동창동문회

▲2013광주공고(동맥인) 한마음 큰잔치=20일(일) 오전 9시~오후 5시 모교 운동장. 주최 광주공고 총동창회(회장 홍석태) 062-511-1946. ▲송원고 총동문 한마음대축제=20일(일) 오전 8시30분~오후 5시 송원대학교 운동장 062-384-7447.

종친회

▲(사)전주씨매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 여성 이화월례회의(회장 이보희)=22일(화) 오전 11시 011-605-2059.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6.

▲광주남부중독관리센터=5대 중독(알코올, 인터넷, 마약, 도박, 니코틴)에 대한 상담을 제공. 21일(월) 오후 6시 30분 062-412-1461, 062-413-1195.

▲제1회 전국 동요경연대회 개최(주최 (사)한국음악협회 함평군지부)=11월 9일(토) 오후 2시 함평군민회관 2층, 경연부문 및 경연곡은 독창, 중창 중(지정곡 1곡, 자유곡 1곡). 자원은 전국 초·중·고·일반 동요를 사

랑하고 관심있는 분이든 누구나 환영함. 참가신청은 11월 4일(월), 시상은 각 부문별 최우수상 1명·우수상 2명 분의 010-2047-9237(윤선명 사무국장).

▲친환경영농사업단은 고령령, 저학력, 무기능자 중에서 농사에 경험이 있는 참여주민들을 위주로 유기농산물과 연관이 다양한 채소작물의 재배를 통하여 친환경 유기농산물 영농인으로 거듭나며 웰빙제품을 선호하는 대상을 위주로 고령고 및 자체 제품 판매를 통한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모집

▲시니어비즈플라자 '심리상담사 양성과정' 교육생=관심있는 미취업자·주부 등 40세 이상 우대(교육비 무료). 심리상담사 2급 자격증 취득 가능. 교육기간은 11월 5일~28일(주2회·화목, 오후 2시~6시) 금남로

2가 무등빌딩 13층, 접수마감은 31일(목) 오후 6시까지(선착순 25명) 교육신청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young585@naver.com 또는 팩스 062-236-3263.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시니어비즈플라자 062-236-3262.

▲무등산에너지=사·군·무자본 대리점주 및 남·여 사원 모집 062-251-0611, 010-5126-5324.

▲각화문화회집 프로그램 회원=바이올린교실(매주 토요일 오후 1시~오후 4시 30분), 하모니카(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오후 3시), 노래교실(매주 월요일 오후 3시~오후 4시 30분) 등 수시 회원 모집, 광주 북구 각화동 480-41번지 062-265-9337.

▲사랑의 열매와 함께하는 나눔교육 신청 안내=사랑의 열매에서 광주 지역 유치원,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나눔교육을 실시. 참여 어린이 나눔문화 활동가 인증서 발급. 062-222-3566, 3567.

부음

▲이길남씨 별세 김영진(전 남부림 장관·국회의원)·근진(강진농협 조합장)·옥진(도암교회목사)·성진(개인사업)·경남(광주한빛교회 권사)씨 모친상 이해근씨 빙모상 의정(아시아항공 부사장)씨 조모상=발인 19일(토) 강진산림조합장례식장 061-433-2300.

▲홍순례씨 별세 조주현·소현·선현·용석·금호·영애씨 모친상=발인 18일(금)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강의철씨 별세 양수(강양수 성형외과 원장)·성운·주연·수연씨 부친상 정운영(조선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수)씨 시부상 정범태(인천스마일타 치과의원)·정용환(나주 정용환치과의원)씨 빙부상=발인 18일(금)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임한태씨 별세 동영(동구청)·동욱(관세청)·혜경·숙경·옥경·금희씨

부친상 권미애(농협)·김연희(인천 은누리병원)씨 시부상=발인 18일(금)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윤영남씨 별세 건식·현식·순남·해경·미경·정화씨 부친상=발인 17일(목)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

515-4488. ▲노준순씨 별세 김재복·영례씨 모친상=발인 17일(목)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박정남씨 별세 강주성·미선·미영씨 모친상=발인 17일(목)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버섯 연구 외길... 전남도 산림자원연구 오득실 박사

“자생 버섯 대량 재배, 농민들 새 소득원 만들 것”

“우리 산에는 몸에 좋은 버섯이 지천에 깔려 있어요. 잘 알려지지 않은 버섯을 찾아내 재배하면 농가 소득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녹지연구사인 오득실(여·44) 박사의 낯은 등산화는 실 틀이 없다. 그녀는 연구실보다는 산에 올라가는 날이 많다. 휴일이면 하얀 가운 대신, 등산복을 입고 버섯을 찾아 강원도며 지리산 일대를 누빈다. 국내에 자생하는 버섯은 대부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으스스한 곳에 많아 그녀의 산행은 더욱 고단하지만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성과는 대단하다.

이처럼 울창한 산 속에 숨어 있다 그녀의 밝은 눈에 띄어 농가 재배가 시작된 꽃송이버섯이 전남지역 농가의 고소득 작목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꽃송이버섯 재배를 시작한 화순의 한 영농조합의 연매출이 6억 원을 돌파했다. 최근 국내 방송사들이 꽃송이버섯의 효능을 앗다 뒤 보도하면서 찾는 사람

이 늘었기 때문이다. 꽃송이버섯의 농가 재배는 오 박사의 탐과 열정 때문에 가능했다. 오 박사는 항암·면역 기능을 높여주는 베타글루칸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꽃송이버섯 재배법을 개발했고, ‘꽃송이버섯 자생지의 입지조건과 재배특성 및 이용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전남대에서 지난 2월 균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꽃송이버섯의 베타글루칸 성분이 약용버섯인 영지나 상황버섯의 10배 이상을 함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 박사는 꽃송이버섯에 대해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넘게 약리효과를 연구하고 방지 재배법을 개발했다.

그녀는 지난 10여년 동안 버섯연구에 심취해 표고버섯을 시작으로 꽃송이버섯, 잣버섯, 개암버섯, 노루궁뎅이버섯, 참바늘버섯, 소나무잔나비버섯 등 전남도내 곳곳에서 자생하는 각종 버섯들을 찾아다녔다. 이렇게 오박사의 손을 거쳐간 버섯 종류만도 100가

지나 된다. 최근에는 버섯을 따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세를 타면서 새로운 버섯을 먼저 소개해주는 산꾼 늘었다는 게 그녀의 설명이다.

발품을 판 노력은 값진 성과를 안고 왔다. 그녀는 그동안 25건의 버섯 관련 지적소유권을 확보했고, 11개 기술은 14개 업체에 이전했다. 국제학회 논문게재도 13편에 달한다. 또 독보적인 연구실적을 인정받아 산림청 R & D연구개발 과제에 선정돼 8억5000여만원의 정부 출연금을 확보, 향후 4년동안 산학연 연구를 통해 식·약용가치를 체계적으로 입증해 산업화해나갈 계획이다.

오 박사는 “효능이 좋은 버섯을 활용해 맛 이 좋고 암세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음료와 차를 개발중이며 보습과 주름 개선 및 미백효과가 있는 화장품 시제품도 만들고 있다”면서 “약용 버섯의 대량재배가 가능토록 해 농민들의 새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김종전 광주문화원연합회회장 문화훈장

김종(65·시인) 전 광주 문화원연합회장이 16일 문화훈장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씨는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여하는 2013 문화예술 발전 유공자 정부 포상자로 선정돼 화관문화문화장을 받는다.



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하게 된 김씨는 10편의 시집 발간과 14회의 개인 미술전시회를 갖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나주 출신으로 1976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 단단한 김씨는 광주문인협회장, 국제레플림 광주지회장을 지냈으며 영랑문화대상, 광주예술문화대상 등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오는 19일 문화의 서울에서 열린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미국 입양 이세명씨 부모 찾으려 광주일보에 본인 사진 실어

“제 심장은 당신을 향한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저를 입양한 이유가 무엇이든 당신이 평안하길 바라며 꼭 만나고 싶습니다.”

친부모를 찾기 위해 30여년만에 한국을 방문한 이세명(여·37·Jennifer Lee)씨는 광주 일보를 향해 애달픈 심정을 전해왔다.

이씨는 지난 1976년 4월4일 광주시 농성동에서 구정직원에 의해 발견돼 전남아동보호소에 맡겨졌다가 1976년 12월13일 미국 미네소타주로 입양됐다.

그녀는 새로운 부모를 만나 가정을 꾸렸고 이제는 두 아들의 엄마이자 아동심리학

을 전공한 석사로 정신건강 의료원에서 일하고 있다.

한때 자신을 버린 이들을 원망하기도 했으나, 부모가 되면서 혈육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친부모를 찾게 됐다는 그녀는 해외입양인 연대(Global Overseas Adoptee's Link)를 통해 최근 한국을 방문해 입양기관인 대한사회복지회를 찾았다. 그러나 자신이 발견된 장소와 위탁어머니의 이름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최근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 이씨는 “제가 태어난 나라에 저에 대한 흔적이 이것밖에



입양 당시 현재 모습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안타깝고, 어떻게 부모님을 찾아야 할지 막막하다”면서도 “혹시라도 어릴 적 제 사진을 보고 저를 기억하고 있는 분이 나타나주시면 모른다든 가능성에 희망을 갖고 가족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문의 02-325-6585.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상열)는 16일 아너소사이어티 10, 11호 회원이 동시 탄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31일 양관운 오토람 대표가 9호 회원으로 가입한 지 약 80일 만이다. 임명을 요청한 10호 회원은 중소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로 지난 2011년부터 성적우수 아동을 위한 장학금,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비,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등을 위해 이미 8300여 만 원을 기부했다. 이번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가입을 통해 1억 원을 추가로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사업가는

광주 아너소사이어티 10·11호 회원 동시 탄생

“지역에서 사업을 하며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사회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이 회사의 소명”이라며 “앞으로도 임명으로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1호 회원은 글로벌에셋 코리아 광주지사 최석호(56·사진) 지사장이다. 평소 봉사단을 직접 꾸려 봉사활동을 다닌 정도로 봉사에 대한 남다른 열의를 가진 최 지사장



은 봉사가 힘들지만 이웃들에게 희망을 나눌 수 있어 큰 보람을 느껴 이러한 결심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1억이라는 큰 돈은 없지만 저와 자녀들의 월급을 통해 5년 내에 성금을 기부하겠다”며 “미혼인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큰 금액을 기부하는 것에 대해 고민한 것도 사실이지만 가족들이 결정을 존중해줘서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인사

◆조선대학교 ▲사법대학장 류찬수 ▲외국어대학장 사회만

정형외과학회장에 전대병원 정재윤 교수

전남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정재윤 교수가 최근 대한정형외과학회 제56대 회장에 당선됐다. 정 교수는 지난 8일 밀레니엄 서울힐튼 호텔에서 열린 대한정형외과학회 전문위원 회의에서 투표로 선출됐다. 이로써 정 교수는 오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1년간 회장을 이끌어 가게 됐다.



정 교수는 전남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지난 1982년부터 전남대에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 등을 맡아 활발한 대내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

Advertisement for funeral services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details for various families.